趙咸安氏宗會報

發行人：趙鎬韶
編輯人：趙英濟

發行處
咸安趙氏宗事運營會
慶南 咸安郡 郡北面 中岩里 126
TEL：(0552)83-6787
FAX：(0552)83-6787
印刷處
도서출판국제·중앙인쇄문화사
TEL：246-5667·2825
FAX：246-2825

宗會報는 家統資料

西山書院에서 菊薦祭 엄수

1백여명 참석 先祖의 忠節 기려

이달 초헌관에 鄭直敎 이행사에는 漁溪선생 재까지 관리 하고 있는 생육신(生六臣)에게 이달 영남의 유림(儒林)과 어계(漁溪)후손등 의 제향이 다섯 선생의 것이다.

새 곡식을 거두어 올리는 가을 향례(享禮) 국천제(菊薦祭)가 지난 10월 20일 (음력 9월 9일) 咸安郡 郡北面 院北洞 서산서원 경내 사당 충의사(忠義祠)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同東)씨가, 아헌관에는 安鼎基(宜寧)씨, 종헌관 1백여명이 참석하여 분향 에 李光道(咸安)씨가, 집례에는 趙性道(金山) 종사군(不事二君)의 절 의로 충성을 다한 고려 원이 축은 安鳳煥(金海) 의 사(忠義祠)에서 엄숙 했다.

후손들이 참례를 못하고 있지만 유림들과 어계후 손들이 정성드려 제물을 차리고 선인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西隆그룹 益濟회장 他界

『咸趙의 큰별』門中事業에 많은 공헌

지난 7월 29일 상오 6시 30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본회 자문위원 이신 西隆그룹 益濟회장 이 58세 젊은 나이로 타계했다.

그는 숭조정신이 투철하여 대문중에서나 지역 사업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는 咸安 新昌洞 故 齋山 鑄均옹의 7남매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위선(爲先)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釜山에서 西隆섬유공업사를 창설하였고 39세 때(1978년) 부산화수회가 회관 건물을 매입할때 구입가격의 10분지1에 해당되는 3백만 원을 부담하여 일가들을 놀라게 했다. 1980년 成趙부산청년회를 창립하고 다음해 「현재의 화수회관이 규모가 적어 청년회원들의 힘으로 규모가 큰 건물을 세우자」 설득하여 현재 10억원이 넘는 땅을 매입하는데 앞장섰고 자신도 구입가격의 40%를 부담하였다.

또 81년도 서산서원 복원사업, 87년도 영월 貞節公어계 선생사적비 건립등 咸趙가 벌이는 사업에는 언제나 앞장섰다.

부산 일가들은 이러한 숭조정신을 높히 평가하여 1985년 46세의 젊은나이인 그를 부산화수회 회장에 추대하였다.

그는 4남매와 함께 2천만원을 헌성하고 철거한 옹암재 구건물이 남아 있는 넋과 어느곳에 조상한 것을 우려하여 종사운영회에 5백만원을 기부하여 의 숨결이 베어있는 그 대로를 복원 하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1994년 종사운영회가 옹암재 중건사업을 벌이자 헌장을 답사하여 5년동안 회장을 역임하면서 사재를 털어 회관 전면 개축, 「선조의 얼」, 「재부·함안조씨명부」책자를 만들어 부산 일가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예년 정기총회때 13종각(十三忠閣), 그 밑에 동재, 서재를 지어 석율이 그 뒤 1천여명 이 넘게 참석하는 관례를 만들었다.

종사운영 「함조공원」(?) 조공원을 조성할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咸安郡 郡北面 백이산(伯夷山)밑 자생전 그의 구상은 신소유의 4만평에, 시 5년동안 회장을 역임하 조(始)祖 趙鼎(字)의 사 당, 고려말 두문동 72현 의 孤竹齋公, 典書公, 德谷公 세선조의 위패를 모실 사당, 그리고 함조 13충을 모실 사당, 그리고 함조 13충각(十三忠閣), 그 밑에 동재, 서재를 지어 素島선생 明河의사, 그 부사의 위패를 모실 「함조성현」(?) 「함조공원」 투사의 독립 을 조성할 방대한 계획 을 세우고 있었다.

또 3백99년전 정유재란때 黃石山城을 수호하여 여러 사재를 털어 고려말 두문동 72현 의 孤竹齋公, 典書公, 신소유의 4만평에, 시조(始祖) 趙鼎(字)의 사 당, 고려말 두문동 72현 의 孤竹齋公, 典書公, 德谷公 세선조의 위패를 모실 사당, 그리고 함조 13충을 모실 사당, 그리고 함조 13충각(十三忠閣), 그 밑에 동재, 서재를 지어 素島선생 明河의사, 그 부사의 위패를 모실 「함조성현」(?) 「함조공원」 투사의 독립 을 조성할 방대한 계획 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일부 후손들이 20여만명이 넘는 후손과, 많은 충신을 배출하신 현조(顯祖)의 출생지 태지가 참배할 곳도 맛당치 않고 진입도로도 없을뿐 아니라 앉아 쉴 곳도 없어 후손들이 힘을 모아 정화사업을 벌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살고 있는 뜻있는 타성(他姓)들도 「요즘 유명한 예술가, 시인의 생가(生家)도 정부에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생육신 이신 전제하고 선생은 불은 후손중 충을 배출하신 어계선생의 태지를 잡초가 우거진 귀퉁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 한다는 것이다.

한편 종사운영회는 지난 가을 현지를 답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 마을에 함조(咸趙)후손이 살면 「망한다」는 전설이 있어 함안고을에서는 유일한 후손이 한집도 살지않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漁溪先祖 胎地淨化추진

잡초속에 너무 초라

97년 總會때 의견수렴

▲초라한 漁溪先生의 胎地碑

貞節公 어계선조가 태어나신 咸安郡 郡北面 明館里소재 태지(胎地)가 잡초가 우거진 등판 모퉁에 초라하게 서있다고 지적, 후손들이 힘을 모아 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종사운영회는 97년 정기총회때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곳 태지는 5백76년전인 1420년 어계선조가 탄생하신 곳으로 수백년이 흐르는 동안 집은 허물어져 없어지고 잡초만 우어겨 있었다. 1960년 뜻있는 여러분이 모금하여 수위에 적벽돌로 담을 쌓아 현 사운영회가 발족한 다음해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옮겨 세우면서 주위에 작은 일에 많은 성금을 보태 지금 처럼 훌륭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곳 태지는 5백76년 비석을 세웠다가 지대가 낮고 너무 초라해 이 1975년 한안조씨종계했다.

그는 숭조정신이 투철하고 『貞節公 漁溪先生 胎地』 병원에서 본회 자문위원 이신 西隆그룹 益濟회장 때(1978년) 부산화수회가 회관 건물을 매입할때 구입가격의 10분지1에 해당되는 3백만원을 부담하여 일가들을 놀라게 했다. 1980년 成趙부산청년회를 창립하고 다음해 「현재의 화수회관이 규모가 적어 청년회원들의 힘으로 규모가 큰 건물을 세우자」 설득하여 현재 10억원이 넘는 땅을 매입하는데 앞장섰고 자신도 구입가격의 40%를 부담하였다.

81년도 서산서원 복원사업, 87년도 영월 貞節公어계 선생사적비 건립등 咸趙가 벌이는 사업에는 언제나 앞장섰다.

부산 일가들은 이러한 숭조정신을 높히 평가하여 1985년 46세의 젊은나이인 그를 부산화수회 회장에 추대하였다.

그는 4남매와 함께 2천만원을 헌성하고 철거한 옹암재 구건물이 남아 있는 넋과 어느곳에 조상한 것을 우려하여 종사운영회에 5백만원을 기부하여 의 숨결이 베어있는 그 대로를 복원 하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1994년 종사운영회가 옹암재 중건사업을 벌이자 헌장을 답사하여 5년동안 회장을 역임하면서 사재를 털어 회관 전면 개축, 「선조의 얼」, 「재부·함안조씨명부」책자를 만들어 부산 일가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예년 정기총회때 13종각(十三忠閣), 그 밑에 동재, 서재를 지어 素島선생 明河의사, 그 부사의 위패를 모실 「함조성현」(?) 「함조공원」 투사의 독립 을 조성할 방대한 계획 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咸安郡 郡北面 백이산(伯夷山)밑 자생전 그의 구상은 신소유의 4만평에, 시조(始祖) 趙鼎(字)의 사 당, 고려말 두문동 72현 의 孤竹齋公, 典書公, 德谷公 세선조의 위패를 모실 사당, 그리고 함조 13충을 모실 사당, 그리고 함조 13충각(十三忠閣), 그 밑에 동재, 서재를 지어 素島선생 明河의사, 그 부사의 위패를 모실 「함조성현」(?) 「함조공원」 투사의 독립 을 조성할 방대한 계획 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일부 후손들이 20여만명이 넘는 후손과, 많은 충신을 배출하신 현조(顯祖)의 출생지 태지가 참배할 곳도 맛당치 않고 진입도로도 없을뿐 아니라 앉아 쉴 곳도 없어 후손들이 힘을 모아 정화사업을 벌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살고 있는 뜻있는 타성(他姓)들도 「요즘 유명한 예술가, 시인의 생가(生家)도 정부에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생육신 이신 전제하고 선생은 불은 후손중 충을 배출하신 어계선생의 태지를 잡초가 우거진 귀퉁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 한다는 것이다.

한편 종사운영회는 지난 가을 현지를 답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 마을에 함조(咸趙)후손이 살면 「망한다」는 전설이 있어 함안고을에서는 유일한 후손이 한집도 살지않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총연합회 定期總會

1백 20여 代議員 참석 孝婦와 功勞者에 상장

지난 9월 22일 하오 2시 咸安趙氏 화수회총연합회(회장 弼濟) 정기총회가 서울시 송파구 培明고등학교 강당에서 각지역 화수회장 전국대의원등 1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서울화수회 蕭濟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식은 洗來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9명의 효부와 공로자들에게 상장이 전달되었다.

弼濟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수회는 종족의 우의 다짐에 목적이 있는 만 일가들의 참여도가 낮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젊은층의 뿌리 망각(忘却)의 명예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인사가 있었다.

의 같은 처지임을 인식하고 우리모두 화수회 來종원의 「복한의 붕괴」에 대한 고찰이란 특강이 있었다.

이어 弼奎고문과 鑄九 고문의 격려사가 있었고 大田 유성구에서 咸趙로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永載(濟)종원이 「선조의 충절정신과 깨끗한 몸가짐으로 가문(家門)의 명예를 위해 일생을 부담하여 일가들을 위해 세우신 현조(顯祖)의 공적을 개탄하고 함조(咸趙)의 자랑이 있었다.

또 평통자문위원인 東 식은 동조동손(同祖同孫)인사가 있었다.

이 임원개선에서 哲濟종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종事運營會는 지난 8호 宗告를 통해 3백32년전 족보 甲辰譜와 2백16년전 庚子譜를 영인(影印)하여 나누어 드리고 있읍니다. 甲辰譜와 庚子譜는 咸安趙氏의 역사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가보(家寶)로 소장하실 일가께서는 군북우체국으로 10만원을 송금하시고 함안-6787, 부산-4631-1572으로 연락하시면 곧 소포로 보내 드리겠읍니다.

▲甲辰譜·庚子譜 影印本 신청바람

▲應巖齋낙성식 비디오테이프 申請바람

지난해 12월 4일 應巖齋낙성식과 漁溪선조 묘사(墓享) 장면을 촬영하여 만든 비디오테이프가 몇권 남아 있읍니다.

▲응암재 현성금 와비(臥碑) 제막 연기

응암재 중건공사에 현성금 와비(臥碑)가 오는 11월 22일(음력 10월 12일) 漁溪선조 묘사에 제막될 예정이였으나 사무국장의 유고로 늦어지고 있읍니다.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墓享안내

▲典書公墓域 = 11月 21日(음 10月)
11日 上午

▲寺正公墓域 = 11月 21日(음 10月)
11日 下午

▲漁溪公墓域 = 11月 22日(음 10月)
12日 上午

宗告

■ 돌진치 ■ 회갑연 ■ 결혼피로연 ■ 전문출장부페
마린부페에는 3번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첫째: 탁월한 전망
둘째: 정갈한 음식
셋째: 저렴한 가격
•25인승 버스대기
•300대의 주차시설
•25~60석의 연회장 완비
마 린 부 페
중앙동 KAL빌딩뒤(바다쪽) 마린센타 18F
전화 (051)466-3800

Q마크는 정상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社長 趙昺奎
專務 趙鉉奎

정상을 추구하는 부페
1. 시원스런 20층 전망
2. 편리한 대중교통
3. 350석의 넓은 실내공간
4. 300대의 넉넉한 주차시설
5. 즉석코너와 만족도 1위의 80여종 각국음식
1. 다양한 연회장
-동백실:80석 -석류실:40석
-모란실:30석 -목련실:20석
⊙ 대형 예식장 무료제공(19층)
한 성 부 페
부산진역앞(부산일보뒤) 한성생명빌딩20층
전화 (051)466-3877

大笑軒 선생 親筆 발견

49세때쓴 便紙로 珍品

成均館 大學校 博物館에 소장
『嶺南先儒墨蹟』 서첩에 수록

大笑軒 선생(휘 宗字道 는 근역서화(槿域書彙) 字-1537-1597) 라는 제목을 부쳐 서울 의 유일한 친필(親筆)이 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고 한부는 제목을 근묵 소장되어 있음이 밝혀져 부인할 때 보낸 (槿墨)이라 하여 성균관 후손들이 흥분을 감추지 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 못하고 있다. 여 박물관이 각각 소장

이 친필은 1585년 하고 있다. 大笑軒 선생이 49세때의 그런데 대구서랑(大 서찰(편지)이다. 邱書郎) 金杭會 씨가 성

이 글은 독립운동가 균관대학교에 부탁하여 33인의 한분인 故 吳世 수집한 선인(先人)들의 昌 선생이 역대 명인(名 필한(筆翰)과 시문(詩文) 人)들의 친필을 수집하 을 골라서 모은 서첩 영 는 것을 필생의 사업으 인본 영남선유묵적(嶺 로 삼아 그중 1천2백 南先儒墨蹟)을 발간, 그 명의 인사(人士)의 진적-작품중에서 대소헌 선생 (眞蹟)을 모아 서첩 두 의 서찰이 발견된 것이 벌을 만들어 그 중 한부 다.

▲大笑軒公의 친필 서찰

大笑軒 先生친필 번역문

나라가 不幸한 차에 兵使令監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형제간의 괴로움이 오죽 하겠습니까. 慰問의 書狀을 리고자 하였으나 나(宗道) 지난해 여름에 다리에 종기가 나서 거의 못쓰게 될뻔 하였으나 초봄에야 거우 완치되었으며 심부름꾼의 往來도 없어 지금껏 情과 禮 다하지 못하여 죄스럽고 한스럽 깊이 삭이고 있습니다. 座首宅에 서 전해 받은 부채 바라보니 感慨無量입니다.

오랜 苦生들에 마침내 좋은 직책 맡게 되었으니 可히 致賀해야 겠으나 길이 너무 멀어 뵙기가 쉽지 못할 것 같아 恨歎스럽습니다.

온몸에 濕熱이 왔다 갔다 심상치 않아 終末엔 어찌될지 알 수 없어 공연히 스스로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들으니 사위께서 初試에 合格하셨다니 祝賀해마지 않습니다.

나의 사위 閔興建도 應試하여 會試에 合格하였으나 職場 구할 길이 없습니다. 엎드려 빌건데 한수장(限數丈) 보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數個月內에 왕래할 사람 있겠지요. 그때 인편에 보내주심이 어떻할지. 門中에선 求할 곳이 전혀 없어 감히 이렇게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知禮(宅號)아저씨 여러가지 事情에 밤으니 괴괴한 고을일을 能히 잘 조치할 것으로 믿니다. 伏惟 어른께 삼가 이 回答의 書狀을 올립니다.

己酉年 五月初五日
宗道 病中에 초하여 올림

〈宗事運營會 典禮部長 相來 번역〉

※ 한수장(限數丈)은 해석불가능함.

宗會報 협찬금 답지

마감후에도 宗員들의 熱意 계속

종사운영회는 올해 宗會報 협찬금 접수를 사 한국봉신사장, 二潤 국 실상 마감했으나 그 후 회사무국운영위원등 그 에도 1백50여만원의 협 음이라면서 10만원을 찬금이 계속 답지되어 보내주었다. 또 부산화 그 성의에 감사하고 있 수회 三道(鏞고문도 나 다. 여기엔 빠질수 없다는 마감되 송금해 준 종 원들은 한국금지의 석유 경북 칠곡에서 주유소를 회사(주)油公 圭鄕 사장 경영하는 春培(在종원 과 대구 (주)湖山 哲浩 은 "부친이 세상을 떠나 있던 문서철에서 발견되었다.

이 날 상면 땅을 사서 대문중에 헌납했다는 관례가 이로서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사과공은 漁溪 선조의 다섯째 손자 휘 發孝로서 종손 故 壽子(鏞종 명의로 1930년 3월 5일 法守面 江洲里 1 234번지 趙性和 종원 소유 잡종지 2천6백 57평을 33인에 매입하여 이를 종중앞으로 이전등기 한 것이다. 당시 종사운영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郡北面 舍村里 趙西山亭에 헌납한 것으로 기록 되고 있다.

옛날에는 지손(支孫)이 제위원회가 주최하고 함안군이 후원하는 제10회 아라제(阿羅祭) 개막식에서 본회 趙鍾熙 고문이 함안군 군민 상을 수상하다.

咸安郡民賞 수상

본회 趙鍾熙 고문, 阿羅祭서

지난 11월 2일 아라 상했다.

이 상은 함안군 지역 사회 발전에 공노가 있는 사람을 뽑아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영예로운 상이다.

司果公派 후손이 門中에 獻納한 땅賣買證書와 登記簿 발견

▲67년전 매도증서와 등기부

67년전 사과공파司果公派종손이 咸安郡 法守面 江洲里에 있는 잡종지 2천6백57평을 매입, 이를 대문중에 헌납한 매매증서와 등기부가 최근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매전마을 사과공파 문장 趙仁業(88·鏞종원)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철에서 발견되었다.

이 날 상면 땅을 사서 대문중에 헌납했다는 관례가 이로서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사과공은 漁溪 선조의 다섯째 손자 휘 發孝로서 종손 故 壽子(鏞종 명의로 1930년 3월 5일 法守面 江洲里 1 234번지 趙性和 종원 소유 잡종지 2천6백 57평을 33인에 매입하여 이를 종중앞으로 이전등기 한 것이다. 당시 종사운영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郡北面 舍村里 趙西山亭에 헌납한 것으로 기록 되고 있다.

옛날에는 지손(支孫)이 제위원회가 주최하고 함안군이 후원하는 제10회 아라제(阿羅祭) 개막식에서 본회 趙鍾熙 고문이 함안군 군민 상을 수상하다.

효성그룹

錫來회장, 3천만원 희사

총연합회와 서울화수회에

화수회 총연합회와 서울화수회에 운영자금으로 3천만원을 기탁했다.

이 금액을 총연합회가 1천만원 서울화수회가 2천만원 나누어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한다.

馬山화수회 定總

함안조씨 馬山화수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6일 상오 11시 마산공설운동장 윤림피국민생활관에서 종원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신임회장에는 世奎(경남약국대표)종원이, 부회장에 合浦區에 曾東英종원, 檜原區에 曾濟종원이 각각 선출되고 총무에는 鍾喜종원이 임명되었다.

(남림)

海南장학문화재단 盛濟 이사장 立志傳 다음호로 연기

전 事務局長 澈濟종원 別世

종사운영회 사무국장 澈濟종원이 지난 9월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澈濟종원은 91년 5월 사무국장에 임명되어 93년도 「漁溪先生문집」을 간행, 전국종원들에게 배포했고 지난해 완공된 용암재 중건공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우리는등 위선사업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大笑軒 선생 3백99회 忌祭

咸陽에서는 黃石山城 추모제도

大笑軒 선생의 3백99회 기제(忌祭)가 지난 9월 30일(음력 8월 18일)에 소남리 대소헌 선생 세장(世莊)에서 東潤종손 등 많은 후손들이 참석되었다.

대소헌 선생은 서기 1597년 정유재란때 한가운데 성대히 거행 黃石山城을 사수하다 장열히 전사하셨다.

한편 이날 낮 黃石山城순국선열추모회는 咸陽郡 安義面안의 초등학교 교정에서 숙절하신 선열의 추모제를 성대히 치루었다.

한편 부산종의공사적 연구회는 이 서찰을 원 본 크기로 영인하여 관심있는 후손들에게 배부 하였으나 職場 구할 길이 없습니다. 엎드려 빌건데 한수장(限數丈) 보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數個月內에 왕래할 사람 있겠지요. 그때 인편에 보내주심이 어떻할지. 門中에선 求할 곳이 전혀 없어 감히 이렇게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知禮(宅號)아저씨 여러가지 事情에 밤으니 괴괴한 고을일을 能히 잘 조치할 것으로 믿니다. 伏惟 어른께 삼가 이 回答의 書狀을 올립니다.

己酉年 五月初五日
宗道 病中에 초하여 올림

〈宗事運營會 典禮部長 相來 번역〉

※ 한수장(限數丈)은 해석불가능함.

雪嶽山 정복

부산부인회 회원

咸趙부산청년회 전역 부인회는 60세가 넘은 회원 10명이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설악산 봉정암을 거쳐 대청봉에 올라 함안조씨의 기개(氣槪)를 높혔다.

咸安趙氏 忠毅公 事蹟硏究會 (大笑軒公派)

會 長 趙 顯 大
副會長 趙 漢 奎
副會長 趙 晟 來

釜山廣域市 東區 凡一2洞 830-187 ☎ 646-6378

(株)韓銀相互信用金庫

代表理事 趙 明 來

(大笑軒公派)

釜山廣域市 東區 凡一2洞 612-14
TEL 645-1144~7 FAX. 645-1141

故趙益濟西隆會長을 追慕하며

"오늘, 7월 29일 새벽 6시 30분에 趙益濟 회장께서 永眠하셨습니다." 하는 전갈에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참으로 人生이 無常하고 만나면 必然的으로 헤어지는 것인가 봅니다.

저는 1985년부터 趙會長이 經營해 오신 西隆에서 만 11년을 專務理事가 된 오늘에 이르는 동안, 많은 일을 보좌하며 지냈습니다. 지금 故人을 追慕하는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이 오직 슬프고 애달픔뿐입니다.

■門中 일로 맺은 因緣

나는 1977년 봄, 釜山花樹會 總會場에서 당시 梁山郡守이던 백씨(柏來)의 소개로 益濟 아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2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회장님과 내가 과 忠孝의 마음가짐이 다른 선거후에는 다시 만나 선거를 밀지켜지는 理想鄕으로 하자로 뭉쳐야 한다. 회장님께서는 "門中 이 끈을 잘라야 하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 러니 선거후에는 다시 서 일하자." 하여 나의 西隆入社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회장님의 곁줄에 대한 아낌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제는 물보다 진하다는, '우리가 누구 후손인데!', '사람 안될 때는 며칠이고 회사에 와 사람답게 사는 일을 항상 강조하셨고 또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아직도 어리광을 부리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신 일, 편찮으실 때는 며칠이고 회사에 나와 마다하시고 곁에 앉아 돌보시며 눈물이 모두 눈에 선합니다.

門中史라 할 「先祖의 얼」을 한글 世代에 맞게 발간하실 때, 회장께서는 부산화수회 회장으로서 회사 일보다 문중 일에 많은 시간을 내곤 했습니다.

회관을 중수하고 또 새 회관의 부지를 마련하는데 기울인 정성이나, 重病에 걸린 몇 몇 一家를 살리려고 노력하신 공덕을 누가 차마 잊을 것인가?

當時 故人의 부지를 구입하는데 있어 그 분의 공덕을 누가 잊을 것인가? 그 분은 西隆의 창업주이시고 회사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시고 회사 창립 이래 회사의 고문

咸安趙氏 13忠 (5)

이번 종회보 9호에 게재되는 어른은 13충가운데 기록순으로 다섯번째와 여섯번째로서 이 두분은 형제간이시다.

나라가 왜적에게 짓밟히자 분장개(憤慨慷慨)하여 스스로 참천, 용감하게 싸우시다가 아우는 37세, 형님은 42세의 젊은 나이로 애석하게 순절하신 이야기가 수록된다.

(編輯者 註)

판서공 조신도(判書公 趙信道)

휘는 신도(信道)·어유(仲由)·휘 성(城)의 큰아드님 대소원공(大笑軒公)의 종제이며 판서(判書)공은 1554년 명종 9년) 咸安郡 郡北面 下林里에서 태어나셨다. 성품이 강직하시고 지혜가 탁월하여 어려서 효경(孝經)을 배워 충신되는 법과 효자 노릇하는 법도를 익혔다. 16세에 시(詩)를 지으실 정도로 학문이 높았으나 문과(文科)보다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이 굳어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무인의 길을 거쳐 충청도 온양군수(溫陽郡守)가 지벼슬이 올랐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자 지만 태평세대에 젖은 우리군사는 지리멸렬(支離滅裂)하여 싸움마다 패해 선조대왕(宣祖大王)은 급기야 의주(義州)로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온양군수였던 공이 길이 없어 초혼장(招魂葬)을 치르고 전사해 그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고향에서 발전된 아들들의 유서에 의하면 공은 1556년 明宗 11년) 咸安 下林에서 태어나셨다. 성장하면서 종형 大笑軒公과 가형 判書公과는 지기가 서로 통하여 평소 함께 시세에 대한 여러 문제를 토로 함을 즐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공은 비록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지만 사대부인 충효(忠孝)의 도리와 집안의 범도는 네가 에 적의 침입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다하여 부인과 아들을 전대로 힘써서 시행하라는 고 기록 하였다. 이 글에서 공의 조상에 대한 직장(直長)인 장인 尹仁 효성심과 가문의 범도, 治에게 맡기고 부인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가 깃들어 있었다. 공의 묘는 咸安 下林 공의 묘는 密陽朴氏와 합장되었다.

선조대왕이 공의 부음을 듣고 놀라 『과인이 나다하여 부하 3백명을 거느리고 왜군을 격퇴시켜 왕을 무사히 의주로 피난시켰다.

일단 후퇴하던 왜구는 정유재란을 일으켜 재차 공은 한강 기신(紀信)이리도 어찌 이 보다 더 하겠는가고 슬퍼하며 특별히 병조판서(兵曹判書)의 증직을 내리고 호성일등 훈전에 기록하고 선무훈(宣武勳)을 내려 그 충성의 죽음을 표창했다.

공은 한강변 전투에서 전사하여 그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 초혼장(招魂葬)을 치르고 전사하였다.

※후손들은 충청도에 세거한다.

先祖의 얼 ⑨

趙晶來〈文化部 次長〉

감찰공 조민도(監察公 趙敏道)

휘는 민도(敏道)·어계선조의 5세손·자 계유(季由)·휘 城의 둘째 아드님·大笑軒公의 종제 判書公의 아우이며 監察公의 파조(派祖)이시다.

공은 1556년 明宗 11년) 咸安 下林에서 태어나셨다. 성장하면서 계선조의 5세손·자 계유(季元翼)·휘 城의 둘째 아드님·大笑軒公의 종제 判書公의 아우이며 監察公의 파조(派祖)이시다.

공은 곧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의 진중에 달려가 같이 싸움것을 청하여 그의 부하로 전투에 참전했다. 그때 10만명의 왜군이 이미 경북 尙州까지 침들어와 한편이 우리 군사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군사들은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했으나 패색이 짙어지자 李鎰이 도망 가려하자 눈치 챈 군사들도 뒤따르려했다. 공은 『군가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그 난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고 호통치며 끝까지 지휘를 다해 싸우다가 전사 하였다.

때는 1592년 선조25년) 4월 25일, 향년 37세이다. 체찰사(體察使)이원익(李元翼)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자 선조대왕은 자진 싸움에 임한 공을 높히 치하하시고 전사한부 司憲府) 감찰(監察)을 특증하고 녹훈과 함께 정려(旌閭)하고 조세 감면의 혜택을 입혔다.

판서공 조신도(判書公 趙信道)

휘는 신도(信道)·어유(仲由)·휘 성(城)의 큰아드님 대소원공(大笑軒公)의 종제이며 판서(判書)공은 1554년 명종 9년) 咸安郡 郡北面 下林里에서 태어나셨다. 성품이 강직하시고 지혜가 탁월하여 어려서 효경(孝經)을 배워 충신되는 법과 효자 노릇하는 법도를 익혔다. 16세에 시(詩)를 지으실 정도로 학문이 높았으나 문과(文科)보다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이 굳어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무인의 길을 거쳐 충청도 온양군수(溫陽郡守)가 지벼슬이 올랐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자 지만 태평세대에 젖은 우리군사는 지리멸렬(支離滅裂)하여 싸움마다 패해 선조대왕(宣祖大王)은 급기야 의주(義州)로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온양군수였던 공이 길이 없어 초혼장(招魂葬)을 치르고 전사하였다.

선조대왕이 공의 부음을 듣고 놀라 『과인이 나다하여 부하 3백명을 거느리고 왜군을 격퇴시켜 왕을 무사히 의주로 피난시켰다.

일단 후퇴하던 왜구는 정유재란을 일으켜 재차 공은 한강 기신(紀信)이리도 어찌 이 보다 더 하겠는가고 슬퍼하며 특별히 병조판서(兵曹判書)의 증직을 내리고 호성일등 훈전에 기록하고 선무훈(宣武勳)을 내려 그 충성의 죽음을 표창했다.

공은 한강변 전투에서 전사하여 그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 초혼장(招魂葬)을 치르고 전사하였다.

※후손들은 충청도에 세거한다.

감찰공 조민도(監察公 趙敏道)

휘는 민도(敏道)·어계선조의 5세손·자 계유(季由)·휘 城의 둘째 아드님·大笑軒公의 종제 判書公의 아우이며 監察公의 파조(派祖)이시다.

공은 1556년 明宗 11년) 咸安 下林에서 태어나셨다. 성장하면서 계선조의 5세손·자 계유(季元翼)·휘 城의 둘째 아드님·大笑軒公의 종제 判書公의 아우이며 監察公의 파조(派祖)이시다.

공은 곧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의 진중에 달려가 같이 싸움것을 청하여 그의 부하로 전투에 참전했다. 그때 10만명의 왜군이 이미 경북 尙州까지 침들어와 한편이 우리 군사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군사들은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했으나 패색이 짙어지자 李鎰이 도망 가려하자 눈치 챈 군사들도 뒤따르려했다. 공은 『군가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그 난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고 호통치며 끝까지 지휘를 다해 싸우다가 전사 하였다.

때는 1592년 선조25년) 4월 25일, 향년 37세이다. 체찰사(體察使)이원익(李元翼)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자 선조대왕은 자진 싸움에 임한 공을 높히 치하하시고 전사한부 司憲府) 감찰(監察)을 특증하고 녹훈과 함께 정려(旌閭)하고 조세 감면의 혜택을 입혔다.

宗會報 협찬금 감사합니다

〈함안〉

▲趙玟濟(산인면 읍곡 리)=1만원
▲趙홍규(산인면 리)=1만원
▲조성탁(代山面 里)=1만원
▲조원제(代山面 里)=1만원
▲조성삼(代山面 里)=1만원
▲조성갑(代山面 里)=1만원
▲조상규(山仁面 里)=1만원
▲조현태(咸安面 국에서)=2만원
▲조용한(가야읍 리 본동)=2만원
▲趙三道(鏞·부산화수회 고문)=5만원
▲趙性佑(성암상사 장)=2만원
▲趙成來(金山鎭區 亭4洞)=2만원
▲趙点元(濟·北區龜浦 1洞)=1만원
▲趙順濟(金井區南山洞)=1만원
▲趙玉來(南區 洞)=2만원
▲趙靈淳(南海郡 리)=1만원
▲趙大濟(협성개발 대표이사)=1만원
▲조철기(해운대구 송동)=2만원
▲趙鏞判(金山淸風會 전회장)=5만원
▲趙甲濟(鎭海市 읍)=3만원
▲趙承珠(統營市 면)=1만원
▲趙世奎(馬山 회장)=5만원
▲趙炳奎(馬山市 면)=1만원
▲조용태(김해시 면)=1만원
▲趙遠來(固城郡 읍)=1만원
▲趙圭鄕(株式會社 동)=1만원
▲趙曾濟(馬山화수회 부회장)=1만원
▲趙昶來(南海郡 읍)=2만원
▲趙鎔錄(江北區 동)=1만원
▲趙鎭卜(중랑구 4동)=1만원
▲趙顯旭(漆谷郡 면)=1만원
▲趙凡來(西區中里2洞)=1만원
▲趙靈濟(浦項市 읍)=1만원
▲趙東洙(달서구 1동)=3만원
▲趙鏞壁(壽城區 洞)=2만원
▲조탁제(靑松郡 邑)=1만원
▲조주규(浦項市 浦邑)=2만원
▲조필제(龜尾市 읍)=3만원
▲趙春培(在·漆谷郡 산면 학상후유소)=10만원
▲趙在榮(西區 洞)=2만원
▲趙博來(馬山市 담당관)=2만원
▲趙鏞汶(충청북도 충청북도 단양 경찰서장)=2만원
▲趙晉濟(충청북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1만원
▲趙三來(달서구 국가고시 기술사 면)=1만원
▲趙貞來(부산시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차장)=1만원
▲趙在允(부산은행 마산지점 차장)=1만원
▲趙在光(부산은행 대동은행 인천부평지점 차장)=1만원
▲趙植來(동화은행 방이동 지점장)=1만원
▲趙二濟(국회사무처 운영위 과장)=1만원
▲趙鏞國(부산시 의정부에서 변호사 개업)=1만원
▲趙興來(강릉시 일강원대학교 교무과 장)=1만원
▲趙在新(일본 동경 일본 국민은행 수유동 지점장)=1만원
▲趙琪來(일본 국민은행 수유동 지점장)=1만원
▲趙鏞大(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상업감사로)=1만원
▲趙鏞淑(부산국민상호신용금고 상업감사로)=1만원
▲趙定來(일본 한국무역복지공단 복지사업부장)=1만원
▲趙顯峻(일본 신용보증기금 전산부장)=1만원
▲趙俊濟(일본 서울은행 남산지점 차장)=1만원
▲趙良來(일본 서울은행 남산지점 차장)=1만원
▲趙種來(일본 동남은행 동아대병원 지점장)=1만원
▲趙宣濟(일본 동경은행 상근연구원)=1만원
▲趙博來(일본 馬山市 문화공보실 전문위원)=1만원
▲趙政奎(일본 동경대학교 행정대학원 수업과장)=1만원
▲趙三來(일본 동경대학교 교무기획과장)=1만원
▲趙惠濟(일본 동경대학교 부설백병원 해부병리과장)=1만원
▲趙洙來(일본 중앙소방학교 서무과장)=1만원
▲趙鏞燦(일본 주택은행 서울테헤란로지점 개설준비위원장)=1만원
▲趙龍來(일본 한국개발리스 근무중 6개월간 일본 연수)=1만원
▲趙乙來(일본 정보통신부 정책실 진흥과장)=1만원
▲趙祥來(일본 국회사무처 운영위 과장)=1만원
▲趙鎭錄(일본 서울테헤란로지점 개설준비위원